

# 세계의 역사·문명 이끌어 온 15개 도시 이야기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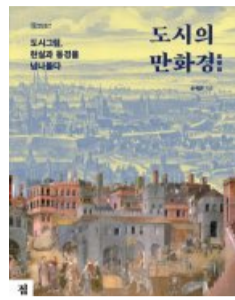
## 도시의 만화경

손세관 지음

1739년에 나온 이 지도를 일컬어 사람들은 '예술품'이라고 한다. 정교하고 아름답기가 이를 데 없다. 바로 '튀르고 지도'. 18세기 파리의 모습을 그렸는데 섬세하면서도 입체적이다. 그런데 왜 명칭을 '튀르고 지도'라 했을까. 지도를 기획하고 제작비를 부담한 이가 당시 파리 시장 에티엔 튀르고였기 때문이다.

튀르고는 왕립 미술아카데미에서 투시도를 강의하던 브레테즈 교수에게 파리 지도 제작을 의뢰했다. 한 달 만에 '근대도시'의 모습을 그렸는데 섬세하면서도 입체적이다. 그런데 왜 명칭을 '튀르고 지도'라 했을까. 지도를 기획하고 제작비를 부담한 이가 당시 파리 시장 에티엔 튀르고였기 때문이다.

손세관 중앙대 명예교수가 펴낸 '도시의 만화경'에는 도시를 그린 지도와 그림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 그



동안 동서양의 도시와 주거문화에 대해 연구를 해왔고 이번 책은 그런 과정의 결과물이다. 실제 설계 실무를 맡아 온 평뉴타운 같은 도시 만들기 작업에 참여했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저자는 도시를 그린 지도와 그림을 유난히 좋아했다. "건물은 도시 속에 어떻게 섞여 들어갈까? 주택은 어떻게 모이며, 사람들은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갈까?"와 같은 질문을 달고 살았다. 한마디로 '도시와 인간 삶의 상관성'은 저자의 주요 관심사였다.

어떤 이는 도시를 일컬어 "인간이 만든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한다. "크고 작은 건물,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 모양이 제각각인 광장과 외부공간, 성벽, 하천, 다리, 선박, 수복 등등,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도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나면 '예술품'이라는 수사가 적확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책에는 세계사에 빛나는 동서양의 15개 도시 이야기가 나온다. 피렌체, 베네치아, 파리, 로마, 빈, 베이징, 서울, 교토, 뉴욕 등 세계 역사와 문명을 이끌어가는 도시들이 주인공이다. '도시그림, 현실과 동경을 넘나들다'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도시를 그린 지도와 그림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도시그림은 건축이나 도시계획, 지리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미술사,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데 도시그림에는 당시 사회제도도 비롯한 경제

와 유통,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가 담겨 있다.

유럽 최초의 도시그림은 '좋은 정부의 도시'다. 암브로조 로렌체티가 그린 이 그림은 13-14세기 이탈리아 도시 공동체가 상징한 이상사회의 상(像)이 투영돼 있다. 시에나는 13세기 후반부터 '9인정부'라는 정치체제를 가동했다. 일종의 대의정치로 도시를 다스릴 정부관 9명은 투표로 뽑았다. 시민정신에 토대를 둔 정치체제는 도시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했다.

'좋은 정부의 도시'가 그려진 건 그 무렵이었다. 9인 정부의 방을 장식하는 그림이 필요했고 암브로조가 선택됐다. 그는 1338년 2월에 작업을 시작해 16개월 간 몰두해 마침내 1339년 5월에 작품을 완성했다.

18세기 향양을 그린 '도성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도성도)는 '회화식 지도'로 알려져 있다. "향양은 수려한 산수 공간 속에 들어선 도시"라는 말이 실감난다. 도로는 굽기가 다르고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인체의 싹뚝을 연상'하게 한다. 저자는 '주례의 원리에 풍수지리 사상이 합해진 도시'라고 본다. 흥미로운 것은 남산이 화면의 위쪽에, 경복궁과 창덕궁이 아래쪽에 자리한다. 임금이 있는 궁궐에서 도성을 바라본, 다시 말해 왕의 시선에서 그린 그림이다.

이밖에 융성했던 바다의 도시 베네치아를 비롯해 시민의 삶을 위해 만든 다채로운 도시 암스테르담, 한 쌍의 6쪽 병풍에 담은 에도 시대 교토, 격자 틀 속에 펼쳐진 초고밀의 뉴욕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저자는 "열다섯 도시를 다 읽고 나면 동서양의 도시문명을 비교분석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도서출판 집>3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암브로조 로렌체티가 중세도시 시에나의 평화로운 도시의 상을 그린 '좋은 정부의 도시' 부분. <도서출판 집 제공>

## 사랑을 글쓰기로 배웠어요

이만교 지음

글을 쓴다는 것은 작가 혼자 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대화는 둘이 쓰는 글쓰기이다. "나"가 한 문장을 말하면 "나"가 한 문장을 이어가는 공동창작이다"이라 할 수 있다.

글쓰기와 대화법을 정리한 책 '사랑을 글쓰기로 배웠어요'는 대화를 글쓰기처럼 사유하고 창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여섯 권의 소설과 세 권의 '글쓰기 공작소' 책을 출간한 이만교 작가가 저자다. 그는 "대화를 글쓰기처럼 사유하라"고 말한다. 글쓰기처럼 더 나은 생각문장을 고민하고 글쓰기처럼 단락을 만들라고 조언한다. 아울러 대화는 공동창작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대화를 둘이 쓰는 글쓰기로 상정한다. 혼자서는 만들지 못했을 더 좋은 생각문장을 고민하면 우리는 우리로서의 대화로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상대방과의 대화로 내가 미처 몰랐던 진실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더 훌륭한 창작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나는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 몰라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더 없이 겸손한 역설적 자세로 대화한 사람이다. 이러한 산파술의 태도는 타인과 대화 나눌 때 가장 바람직한 대화 자세다.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고, 상대를 가장 높은 자리에 놓는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질문을 매개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또한 저자는 사랑의 사건은 결국 대화로 귀결된다는 생각을 견지한다. 당신의 지금을 나의 지금으로, 또 나의 지금을 당신의 지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마음의숲>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신: 우주를 향하여 1·2

박해성 외 지음

"인간은 현실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우주)에 대한 꿈을 그리고 있다."

조각가 문신(본명 문안신·1922~1995)은 1970년대 작가노릇에 이렇게 적었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만든 여러 조각 작품에 '우주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붙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박해성 학예연구사는 작가의 '우주'에 대해 "그가 평생 탐구한 생명의 근원이자 미지의 세계,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는 고향과도 같다"면서 "'우주를 향하여'는 생명의 근원과 창조적 에너지에 대한 그의 갈망, 그리고 내부로 침잠하지 않고 언제나 밖을 향했던 그의 도전적 태도를 함축한다"고 해석했다.

2022년은 조각가 문신의 탄생 10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였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경남 창원시가 공동 주최로 덕수궁전시실에서 기념전 '문신:우주를 향하여' (~1월 29일)를 열고 있다. 전시에 맞춰 수류산방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팀은 1년여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문신 예술세계의 길라잡이가 될 총 1176 페이지에 달하는 두 권의 책을 차례로 선보였다. 1권 '모노그래프 일시(一始)'는 기획자의 글과 박해성 학예연구사의 '문신의 삶과 예술', 대표적인 작품 이미지로 구성됐다. 2권 '코멘터리 무종(無終)'은 미술사학자와 건축대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젊은 학자 8명의 글과 작품 디테일, 연보·작품목록을 수록했다.

작품집과 학술서를 결합한 두 권의 책은 '한국의 근대예술가 문신에 대한 하나의 기록'(monograph)이다. 김재경 건축사건가와 수류산방이 새롭게 촬영해 수록한 전시 작품 이미지들은 독자들에게 전시장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안겨준다.

<수류산방>1권 3만2000원, 2권 4만8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

엘커 비스 지음, 유동익 외 옮김

우리가 무인도에 홀로 떨어지게 된다면 의식주 외에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 아마 외로움이 아닐까 싶다. 사람과 사람이 한데 엉켜 살아가는 오늘날, 먹고 사는 것 밖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커뮤니케이션, 의사 소통은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나비효과처럼 공동체를 조성한다.

적절하지 않은 소통은 불신과 오해를 낳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통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그렇다면 '잘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은 대화의 노하우에 대해 얘기한다. 그 중에서도 '잘 질문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 엘커 비스는 연극 대본 작가이자 감독, 공연 제작자로, 더 많은 이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질문하는 법에 오랜 공을 들여왔다. 책은 네덜란드에서 출간된 후 88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저자는 양질의 대화는 '목적'부터 바뀌어 한다고 말한다. 상대를 설득하거나 내 편으로 만드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뢰 100% 공감하지 않고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부연한다. 그렇게 되면 나와 상대방 모두의 시각이 넓어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총 5장으로 나뉜 책은 '좋은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와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 '좋은 질문의 조건', '마음을 사로잡는 질문의 기술', '질문한 후 대화를 이어가는 법'에 대해 얘기하며 대화 도중 우리가 느낀 가려움을 긁어낸다.

<동양북스>1만5800원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